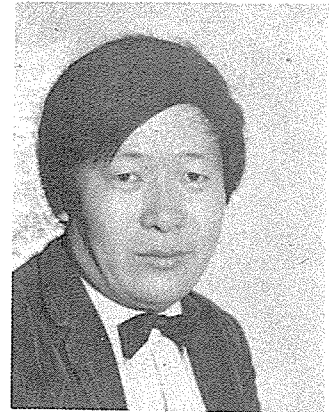


各国 建築士 活動 環境 資料 紹介

佛 蘭 西 篇

姜錫元 (駐佛 韓国人建築士)



1. 建築士の数

現在 佛蘭西에서는 영업자와 비영업자의 숫자를 정확히 파악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現在, 建築士로 등록되어 있는 숫자는 '73年12月31日 現在 9,070名의 佛蘭西人과 365名의 外國人들 中에는 佛蘭西에서 建築資格을 받은 사람 및 外國에서 建築資格을 받은 사람들이다. 外國에서 建築資格을 받은 사람으로 佛蘭西 政府에서 인정한 사람은 손을 꼽을 정도로 극소수이다.

韓國의 서울과 마찬가지로 佛蘭西의 首都 파리에서도 4,422名의 佛蘭西人과 286名의 外國人으로 총 4708名, 거의 반에 해당하는 建築家들이 파리 및 파리近郊에서 일하고 있다.

비영업 建築家의 수는 확실한 통계 숫자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히는 알 수 없다.

2. 建築士法에 對하여

(1) 建築士資格 및 免許取得節次

原則적으로 佛蘭西는 建築家가 되려면 두개의 學校를 거쳐서 建築家가 된다.

첫번째 大學은 政府에서 운영하는 學校, 즉 佛蘭西 國立 파리 大學이 있다. 이 大學에는 建築科 大學이 9개 로 나누어져 있으며 (제 1, 제 2, 제 9 大學까지) 이 大學을 나온 사람은 佛蘭西 政府에서 주는 建築家資格 (Dplg)을 얻게 된다.

두번째 大學은 私立 大學으로서 여기를 나온 사람은 建築士資格의 특별한 시험을 한 과목 처야 Dplg를 얻을 수 있다.

Dplg를 받게 되는 과정을 알기 위해 대학 system부터 살펴보자.

佛蘭西는 1968年 以前에는 建築 大學 입학이 대단히 어려워 보통 50~58:1이라는 경쟁을 거쳐야 했다. 이렇게 하여 일단 入学만 하면 자기가 죽기 전에 졸업만 하게 되면 建築士資格 (Dplg)을 따게 되었다. 이 학교를 '68年 以前에 졸업하려면 우선 의과 大學 system과 마찬가지로 2년간의 training course를 거쳐서 시험에 합격하면 한 教授 밑에서, 한 교실에서 上級生 순위로 table를 마련해 놓고, 우선 처음에 들어가면 첫번째 table에서 백몇십개 혹은 80여개의 table을 거쳐서 졸업하게 된다. 즉 학년제보다는 작품을 위주로 학제가 올라가게 되어 있다. 마지막 졸업하기 前에는 "그랑프리그름"이라는 로마 大賞 制度가 있어 이것을 타기 위한 야심가는 졸업을 연기하면서 까지 이 賞을 타기 위해 노력한다.

왜냐하면 일단 이 大賞을 타게 된다면 1年동안 Rome의 별장들과 기타 Italy에 있는 世界的인 建築家들과 meeting을 가져서 자기의 뜻대로 하나의 建築家로서 대성할 수 있는 基盤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68年以後에는 이 大學制度가 일단 해체가 되어서 이 大學을 入學하는 것은 자유로 되어 있고, 졸업하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었다. 以前과 달리 지금은 予科라는데 없 어지고, 入學과 동시에 5年동안에 필수 혹은 전공과목을 履修한후 마지막 1년 동안은 卒業班에 있으면서 Dplg라는 政府에서 주는 建築家資格 시험준비를 하게 되어 있다.

졸업반에 있어서 이 資格시험에 합격과 동시에 그날부로 建築家資格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直接獨立하여 個人 研究室을 가질 수도 있고 만 사람밑에서 일 할 수도 있다. 독립하려면 우선 不亂서 建設部에 자기가 開業한다는서류를 제출하면된다. 이 서류를 제출하고 난후 3-4개월이 지나면 완전한 즉 韓國에서 말하는 1급 혹은 2급 建築士의 資格으로 自己의 사무실을 갖게 된다.

(L) 建築士資格 試驗制度

建築士資格 試驗은 原則的으로 不亂서에는 없다. 外國人에 대해서도 特別한 혜택은 없고, 만약에 어떤 나라에서 建築家 1급 자격증을 가졌다 하더라도 일단 外國人에게는 建築士資格試驗에 해당하는 서류라든가 혹은 작품으로서 대학 5學年에 入學하게 하는데, 이것도 特別한 예가 아니고는 힘들다. 原則的으로 1學年서부터 시작하여 자기네들의 建築士資格을 주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1968年以後에 世界的인 大家 "오스카 니마이어" (Oscar Niemeyer) 는 現在 不亂서에 개인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데 이분은 不亂서 政府에서 특별히 建築士 資格証을 政府에서 직접 준 사람의 하나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문 예이다.

(C) 建築士協會의 構成 및 業務

국가를 대표하고 있는 即, 韓國의 建築士協會와 같은 것이 있고, 그 밑으로 각 지역 별 지부로 되어 있었으나 2年前부터 그것이 개편되어 現在는 30여개의 지부로 構成되어 있다.

協會 構成으로 본다면 명예회장, 회장, 비서실장, 비서관, 그외에 각 기관의 임원들로 되어 있다. 이들은 協會内에서 특별히 official하게 일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보면 韓國의 建築士協會와 별로 相異한 점은 없는 것 같다.

3. 建築許可 節次 事項 (建築法에 의한)

不亂서도 우리나라와 같이 상황에 따라 부분 부분 바뀌고 있다.

建築許可는 보편적으로 圖面과 示方書를 제출한 다음 許可신청을 하면 建築士協會와 도시계획위원회, 환경조형위원회 등의 심사회의를 거친 다음 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다. 경찰 및, 소방서에서 관여하는 부분도 대단히 크다.

原則的으로 1~2개월 사이에 許可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러나 위성도시 같은 것은 비교적 전체적인 계획에서 나온 것이므로 제한이 많지는 않지만 도시내에 기존 建築物을 철거해서 다시 짓는 데에는 색깔의 制限이나 高度의 制限으로써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다고 한다.

4. 設計 및 감리보수 요율에 대하여

위성도시 계획은 약 4%~8%에 해당되고 개인 독립 住宅은 10%정도가 평균이다. 예를 들어 동계 파리 위성도시 계획중에 住宅, 學校, 혹은 Hotel에 대한 감리보수율을 보면 1m²당으로 設計費를 받게 되어 있다. 1m²당 24프랑 55센트로 계약하고 있다. 즉 한국돈으로 환산하면 2,455원에 해당한다.

연간 약 3%정도 인상한다고 한다. 設計현장 혹은 추가設計등은 그당시 어떤 날자를 기준으로 하여 設計費를 계속 올려받게 되어 있다.

5. 設計事務所 運營 實態

(1) 事務所 經營과 稅務問題

事務所 經營에 있어 불란서는 事務所를 크게 3등분하고 있다.

즉약100~200명에 해당하는 큰 建築事務所, 80~40명 정도의 事務所, 그리고 10명 내외의 事務所가 있다. 이 3가지 외에 3~5명으로 구성된 사무실도 많다. (약 80%정도가 小規模 事務所들이다.)

100명을 넘는 연구실에선 대개 하나의 도시를 완전 master plan 하는것에서 부터 부분적인 것까지 다 해 나가고 있으며, 정치적인 배경하에 큰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事務所를 말한다. 그렇다고 大家라고 해서 반드시 큰 事務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그 事務所별로의 구조 또는 일의 量에 따라 인원이 적다 혹은 많다 하겠다.

한 研究室의 예를 보면 주인을 모시고 있는 분은 대학의 도시계획 주임교수이며, 이 분 밑에 建築家가 3명 그밑에 entrant man이 약5명 혹은 바쁠 때는 10명, 비서가 1~2명으로서 事務所가 대개 運營되고 있다.

대개 事務所 경비는 設計費로 運營되고 있다. 한 예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제5 設計事務所라는 스위스 베른에 있는 事務所를 보면 建築家, 행정가, 경리등의 집단으로 되어 있으며 이곳에서 실지적으로 집을 지어 팔고 청부업도 하고 있지만 불란서에선 法的으로 금지되어 있어서 사무실 경영은 設計費에 의존하여야 한다. 또 稅務問題는 자진세 납부로 자기가 設計費가 얼마 들어오고 支出하냐에 따라 세금이 나온다고 한다. 이곳은 절대적으로 過多하게 나온다고 혹은 뇌물을 써 세금을 적게하는 일은 없다고 한다.

報酬 정도를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建築士資格으로 들어갈 경우 가장 좋은 보수가 2500프랑정도다. 그러나 대학을 졸업하면 보통 300弗정도이다. 약 5년정도 지나면 약 600弗~700弗를 받는 게 보통이다. 혹은 청부업자의 회사에 들어가면 800~1000弗까지 받을 수 있다한다.

6. 韓國출신 建築士들의 現地活動 상황

金 重業氏 : 현재 파리에서 여러 雜誌를 통해 韓國建築을 紹介하고 계신다. 국위 선양을 위해서도 매우 자랑스러운 일이라 하겠다.

姜 錫元 (本人) : Gh Pingussan 교수 밑에서 現在 7年동안 일하고 있다. 現在는 事務所의 소장직책을 맡고 동파리 계획의 일부를 담당하며 그외에 동불란서 學校, 서남쪽에 위성도시계획 뿐만 아니라 아파트, 學校 기타의 일을 맡고 있다.

이재한氏: 서울 문리대 물리과를 나온 후 불란서에 있다가 미국에가서 졸업하고 다시 불란서에 와서 조립住宅에 관해서 일하고 계시다.

이 동배氏: 博士学位 준비중이시다.

금년에는 韓國問題와 결부된 博士学位 논문 때문에 韓國을 잠시 들리신다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일을 않고 계시다 한다.

신 용학氏: 서울美大 실내장식과를 나와 “마르세이유”대학 建築學校를 나와 그학교에서 助教로 있다.

오 경동氏: 神父로서 建築科 在學生으로 있다.

그외에 문신(文信)화백의 자제인 문 장철군이 現在 「에콜드 보자아르」大學에 정식 學生으로 다니고 있다.

7. 韓國과 比較해서 가장 다른점.

불란서에서는 建築士의 地位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現在 석유파동 이후에 불란서 건축계는 예전과 같이 활발치는 못하나 住宅問題, 도시 계획問題등 큰 問題點은 以前 계획대로 착착 進行되고 있다. 그대신 은행에서 대행해 주던 금리가 굉장히 많은 이자를 물게 되었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많은 변동이라 하겠다. 建築家의 報酬問題는 사회물가가 높이 치솟고 있는 반면에 그것을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여기서 오는 부작용때문에, 아직까지 striking같은 것은 하고 있지 않지만 内外의으로 굉장히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다.

불란서 建築현황을 보면 1900년도 세계 만국 박람회를 열 때에는 世界 建築의 頂點을 견고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고 역사적으로 증명되었지만, 지금 불란서 建築은 그렇지 못하다. 요즘은 어떻게 하면 싸고, 기계적으로 빨리 공간에다 사람이 살 수 있는 space를 만드느냐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렇게 되어 옛날과 같은 아름다운, 역사적으로 남을 建物は 많이 나오고 있지 않다. 여기에 부수적으로 빠른 industrial한 건물을 많이 생산해 내려고 學校 또는 現在 建築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 방면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그래서 “불란서는 지금 구라파에서도 3류 건축이다”라는 농담이 유행하고 있으며 그들 자신들도 시인하고 있는 상태이다.